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Variables Related to Etiquett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Adolescents

지 금 수* · 나 지 원** · 이 진 숙***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과*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인대학 아동복지과***

Chi, Keum Soo* · Na, Ji Won** · Lee, Jin Sook***

Dept. of Child Studies & Housing Environment*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Jeongin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etiquett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sex, school, and self-esteem), family-related variables (parents' age and education level, and subjectively perceived living standard), and etiquette-related variables (communication on etiquette, experience of etiquette education, parents' interest of and necessity of etiquette education). The subjects were 394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Jeonju. Such statistical methods as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s of etiquett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were slightly high. Among the domains of etiquett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the levels of bowing manner and public etiquette were found to be relatively high. The etiquette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dolescents' self-esteem, subjective living standard, and such etiquette variables as communication on etiquette, experience of etiquette education, parent's interest and necessity of etiquette education. Communication on etiquett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fluencing adolescents' etiquette performance.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etiquette education need to be performed both in family and in school.

Key words : adolescents, etiquette consciousness, etiquette performance

I. 서론

예의범절, 즉 예절(禮節)은 인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근본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을 표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예절은 의(義)의 구현이자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준칙으로 볼 수 있다. 예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리이자 약속으로 예의바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자기관리뿐 아니라 사회인

Corresponding author : Lee, Jin Sook

Tel : 063) 530-9108, Fax : 063) 530-9110

E-mail : jslee0820@hanmail.net

*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의 일부임

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예절은 자신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무질서한 행위의 소유자가 존경받는 인격체가 될 수 없고 사회에의 공헌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과 사회·국가를 약진케 하는 원동력은 예절의 토대 위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풍토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예절은 또한 대인간 의사소통의 윤택유 역할을 한다. 즉, 대인간의 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곧 바른 예절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의와 범절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대량전달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므로 새로운 시대에 적절한 예절의 형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과거에는 부모나 웃어른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습관은 물론이고 기본예절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우·김명나, 1999). 더욱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식 위주의 교육풍조는 지식 중심·결과 중심적인 입시교육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인성과 예절교육이 더욱 간과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렇듯 중요한 삶의 전환기에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신을 추스르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기본예절과 사회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문화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시대에 맞는 예절을 알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치관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기본 예절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여건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예절의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생활예절들이 실제 본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살

아가는데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이정우·김경아, 1997), 예절수행이란 실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지키고 있는가하는 실천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김명나, 1999). 이제까지 예절에 관련된 연구들(강선영, 1999; 김상범, 1998; 김희경, 1999; 이정남, 2000; 이정우·김경아, 1997)을 보면 주부나 초·중·고등학생 등 특정층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예절의식 또는 예절수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성과 학년, 부모의 학력, 연령, 생활수준 등 청소년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예절의식 또는 수행을 조사하였으나 관련변인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한편, 예절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예절교육경험, 부모의 관심, 예절교육 필요도 등 예절관련변인들은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 및 가정관련 변인과 함께 예절관련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기본적 가치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사예절, 공중예절, 대화예절, 방문예절, 몸가짐, 식사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등 8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수행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수행에 관련된 변인들을 개인변인, 가정환경변인, 예절관련변인으로 구분하고 각 관련변인에 따라 예절의식 및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가장 영향이 큰 변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실천을 고양하기 위한 예절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예절의식은 관련변인(개인·가정환경·예절관련변인)에 따

- 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예절수행은 관련변인(개인·가정환경·예절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예절수행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8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인지도를 보면 상집단이 226명(57.4%)으로 과반수가 넘었고 중집단 127명(33.2%), 하집단 41명(10.4%)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생들이 자기 가정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청소년은 중학생 198명(50.3%), 고등학생 196명(49.7%)이었으며, 남학생이 195명(49.5%), 여학생 199명(50.5%)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178명(45.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학력 역시 고졸이

2. 조사도구

1) 예절의식

예절의식이란 평소 예절에 대한 행동과 목표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절의식 척도는 선행연구(강선영, 1999; 김득중, 1997; 이정우 외 6인, 1996; 이정남, 2000)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한 다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몸가짐(4문항), 전통예절(3문항), 인사예절(3문항), 식사예절(4문항), 대화예절(3문항), 전화예절(4문항), 방문예절(3문항), 공중예절(4문항)의 8개 영역 총 28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¹⁾

(n = 394)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학교	중학생	198(50.3)	부학력	중졸 이하	53(13.5)
	고등학생	196(49.7)		고졸	178(45.2)
성	남	195(49.5)	부연령	초대졸 이상	163(41.4)
	여	199(50.5)		45세미만	174(44.2)
생활 수준	상	226(57.4)		45~49세	161(40.9)
	중	127(33.2)	50세 이상	59(15.0)	
인지도	하	41(10.4)	모학력	중졸 이하	85(21.6)
	중고			고졸	218(55.3)
종교	불교	34(8.6)	초대졸 이상	초대졸 이상	91(23.1)
	기독교	164(41.6)		모연령	40세미만
	천주교	48(12.2)	40~45세		214(54.3)
	무교	148(37.6)	45세 이상		91(23.1)

1) 생활수준인지도 및 기타 다른 연속변인들의 '상', '중', '하'의 구분은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를 고려하여 평균 ± 표준편차를 '중'집단, 그 이상을 '상'집단, 그 이하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음.

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예절수행

실제로 행해지는 예절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선 행연구(강선영, 1999; 김득중, 1997; 이정우의 6인, 1996; 강선영, 1999; 이정남, 2000)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절의식과 동일한 8개 영역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9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예절관련 의사소통도

예절관련 의사소통도는 가족간의 의사소통도에 관한 강선영(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다음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서 예절에 관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아존중감 검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이 자각하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 정도 및 자기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자신에 대한 만족·가치 및 존경·자신의 자질과 능력·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 문항(5문항)과 부정적 문항(5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Cronbach's α =.82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2001년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를 수정,

보완한 다음 2001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8개 학교에서 설문지 410부를 배포하여 400부를 회수했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394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 t-검증, F-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²⁾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의 일반적 경향

먼저 청소년의 예절에 대한 일반적 인식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73%) 예절이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라고 답하였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수단」(6%),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3%)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예절의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약 70%의 학생들이 「진실과 인간애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이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자 하는 마음」(16%), 「부모님 뜻을 어기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9%) 등으로 응답하였다. 예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자기 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20%, 「사회생활을 편리하고 품위 있게 영위하기 위해」가 11% 정도로 나타났다. 예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73%의 학생이 「전통예절의 근본정신을 현대생활에 맞게 잘살려야 한다」라고 답하였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간소화하여 생활하는 것이다」가 22%로 나타났다. 「전통예절을 그대로 본받아 생활한다」(3%), 「서구의 예절을 본받는다」(2%)는 극소수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은 예절에 대한 생각, 근본정신 및 태

2) 회귀분석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부와 모의 학력,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67, .74 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의 학력과 부의 연령만을 회귀분석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2〉 청소년의 예절에 대한 인식 경향

(n=394)

	내 용	빈도(%)
예절이란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수단	24 (6.1)
	타인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13 (3.3)
	품위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	69 (17.5)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	288 (73.1)
	계	394 (100.0)
예절의 근본정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62 (15.7)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17 (4.3)
	진실과 인간애로 남을 존중하는 마음	279 (70.8)
	부모님 뜻을 어기지 않고 호도하는 마음	36 (9.1)
	계	394 (100.0)
예절의 필요성	인간으로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259 (65.7)
	방문, 여행등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않기 위해	12 (3.0)
	사회생활을 편리하고 품위 있게 영위하기 위해	43 (10.9)
	혼란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0 (20.3)
	계	394 (100.0)
예절의 가치관	전통예절을 그대로 본받아 생활한다.	12 (3.0)
	전통예절의 근본정신을 현대생활에 맞게 잘살려야 한다.	288 (73.1)
	서구의 예절을 본받는다.	8 (2.0)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간소화하여 생활하는 것이다.	86 (21.8)
	계	394 (100.0)

도에 대하여 비교적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청소년 예절의식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M=3.82)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예절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인사예절, 공중예절, 대화예절, 방문

예절, 몸가짐, 식사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예절수행은 평균 3.42로 예절의식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인사예절, 공중예절, 방문예절, 식사예절, 몸가짐, 전화예절, 대화예절, 전통예절 순으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예절의식에 비해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사예절이 가장 높은 의식과 수행정도(M=4.18, M=3.79)를 보였고

〈표 3〉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의 일반적 경향

(n=394)

하위영역	예절의식	예절수행
	M(SD)	M(SD)
몸가짐	3.69(.72)	3.31(.76)
전통예절	3.42(.83)	2.74(.88)
인사예절	4.18(.71)	3.79(.79)
식사예절	3.63(.86)	3.54(.83)
대화예절	4.06(.71)	3.29(.84)
전화예절	3.58(.88)	3.31(.84)
방문예절	3.94(.75)	3.58(.71)
공중예절	4.15(.71)	3.71(.70)
전 체	3.82(.55)	3.42(.55)

전통예절이 가장 낮은 의식과 수행($M=3.42$, $M=2.74$)을 보였다.

2.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

청소년의 예절의식을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성과 학교에 따라 예절의식 전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인사예절의 경우 여학생이 4.26점 남학생이 4.10점으로 여학생의 인사예절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26$, $p<.05$), 대화예절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0$, $p<.05$).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예절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고(김정애, 1992) 예절의식에 차이가 있다(전상수, 1997)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F=1.12$, $p<.05$) 특히 대화예절과 공중예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 연령 등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예절의식 전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대화예절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5.61$, $p<.01$)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 집단과 초대졸이상인 집단이 고졸집단보다 청소년의 예절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학력이 중졸이하 및 초대졸이상 집단에서 예절의식이 높다는 강선영(1999)의 연구, 모학력이 국졸과 대졸인 집단에서 예절인식 정도가 높았다는 장경선(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예절의식에 차이가 나타나($F=3.92$, $p<.05$)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상인 집단보다 예절의식이 낮았으며 특히 공중예절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절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예절관련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F=19.69$, $p<.001$), 예절교육경험정도가 높을수록($F=9.01$, $p<.001$),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F=13.72$, $p<.001$), 청소년의 예절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F=63.78$, $p<.001$) 예절의식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 의사소통도가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예절의식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강선영, 1999; 이정우·김명나, 1997) 및 예절교육 실시 이후 예절지식의 변화를 보고한 김정애(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예절의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수준인지도, 예절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성·학년,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예절의식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가족내의 예절관련 의사소통, 청소년의 예절교육경험,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예절교육필요도 등 예절관련변인에 따라 청소년 예절의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수행

관련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소년의 성에 따라 예절수행 전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전통예절, 대화예절, 공중예절 수행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예절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다($t=2.25$, $t=2.32$, 2.18 , $p<.05$). 학년에 따른 예절수행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전통예절과 전화예절수행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반면($t=3.04$, 3.19 , $p<.01$), 몸가짐과 공중예절수행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0$, -2.04 , $p<.05$).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예절태도가 높다고 보고한 김정애(199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F=8.81$, $p<.001$) 전통예절과 전화예절을 제외한 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난 이정우·김명나(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의 학력, 연령 변인에 따라 예절의식 전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의 학력에 따라 대화예절의 수행에 차이가 있었고($F=5.47$, $p<.01$) 부의 연령에 따라 전통예절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33$, $p<.05$). 부의 학력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

(n=394)

변인	구분	빈도(N)	몸가짐	전통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	방문예절	공중예절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개인 변인	성	남	195(49.5)	3.67	3.34	4.10	3.60	4.07	3.56	3.87	4.17	3.79
		여	199(50.5)	3.70	3.50	4.26	3.64	4.05	3.59	4.00	4.13	3.85
	학교	t값		.42	1.87	2.26*	.44	.28	.35	1.70	.56	.97
		중학교	198(50.3)	3.67	3.43	4.21	3.64	3.99	3.60	3.90	4.09	3.81
		고등학교	196(49.7)	3.70	3.40	4.15	3.61	4.13	3.56	3.96	4.20	3.83
	자아 존중감	t값		.49	.39	.80	.34	2.10*	.45	.82	1.61	.44
		하	123(31.2)	3.62	3.33	4.09	3.49	3.92 A	3.48	3.87	4.04 A	3.72 A
		중	153(38.8)	3.69	3.45	4.20	3.70	4.07 AB	3.59	3.91	4.12 A	3.83 AB
		상	118(29.9)	3.75	3.47	4.26	3.67	4.21 B	3.68	4.05	4.29 B	3.91 B
	가정 환경 변인	생활 수준 인지도	F값		1.02	.94	1.64	2.29	2.49**	1.25	1.05	2.07*
하			41(10.4)	3.51	3.35	3.97	3.45	3.96	3.29	3.72	3.88 A	3.62 A
중			127(33.2)	3.70	3.50	4.19	3.68	4.05	3.64	4.02	4.13 B	3.85 B
상			226(57.4)	3.71	3.42	4.22	3.62	4.09	3.60	3.93	4.15 B	3.84 B
모 학 력		F값		1.46	.86	2.20	1.89	.61	2.69	2.50	3.81*	3.92*
		중졸 이하	85(21.6)	3.75	3.56	4.31	3.56	4.20 A	3.69	4.05	4.24	3.90
		고 졸	218(55.3)	3.64	3.39	4.14	3.58	3.96 B	3.57	3.95	4.16	3.79
		초대졸 이상	91(23.1)	3.75	3.35	4.16	3.80	4.18 A	3.51	3.81	4.02	3.82
		F값		1.16	1.60	1.65	2.60	5.61**	.94	2.13	2.10	1.28
		예절 관련 변인	예절 관련 의사 소통	하	103(26)	3.55 A	3.23 A	4.08 A	3.49 A	3.93 A	3.40 A	3.80 A
중	162(41.1)			3.61 A	3.37 A	4.07 A	3.49 A	3.97 A	3.46 A	3.80 A	4.02 A	3.71 A
상	129(32.7)			3.89 B	3.89 B	4.41 B	3.91 B	4.28 B	3.88 B	4.22 B	4.33 B	4.06 B
F값				8.33***	7.20***	9.85***	11.05***	9.50***	11.98***	14.27***	7.51***	19.69***
예절 교육 경험 정도	하		76(19.3)	3.59	3.33 A	4.11 A	3.55	3.90 A	3.45 A	3.70 A	4.08 A	3.71 A
	중		168(42.6)	3.70	3.30 A	4.09 AB	3.55	4.06 AB	3.40 A	3.85 A	4.06 A	3.74 A
	상		150(38.1)	3.72	3.60 B	4.33 B	3.75	4.15 B	3.85 B	4.16 B	4.28 B	3.97 B
	F값			.89	5.68**	5.22**	2.62	3.17*	11.68***	12.13***	4.30*	9.01***
부모의 관심도	하		89(22.6)	3.42	3.33 A	4.01 A	3.45 A	3.82 A	3.25 A	3.65 A	4.01 A	3.57 A
	중		179(45.4)	3.73	3.52 B	4.14 A	3.63 AB	4.12 B	3.61 B	4.00 B	4.28 AB	3.85 B
	상		126(32.0)	3.81	3.55 B	4.37 B	3.74 B	4.14 B	3.78 B	4.05 B	4.15 B	3.96 B
	F값			8.99***	13.02***	7.73**	3.05*	6.67**	8.90***	8.97***	3.95*	13.72***
예절 교육 필요도	하	71(18)	3.24 A	2.94 A	3.64 A	3.26 A	3.71 A	3.16 A	3.53 A	3.68 A	3.39 A	
	중	164(41.6)	3.61 B	3.29 B	4.10 B	3.43 A	3.94 B	3.50 B	3.89 B	4.04 B	3.71 B	
	상	159(40.4)	3.96 C	3.76 C	4.51 C	3.99 B	4.35 C	3.85 C	4.17 C	4.47 C	4.12 C	
	F값		30.35***	30.36***	47.74***	28.10***	27.23***	17.40***	20.13***	40.56***	63.78***	

*p<.05 **p<.01 ***p<.001

〈표 5〉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수행

(n=394)

변인	구분	빈도(N)	몸가짐	전통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	방문예절	공중예절	전 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개인 변인	성	남	195(49.5)	3.34	2.84	3.74	3.61	3.39	3.34	3.56	3.78	3.46
		여	199(50.5)	3.29	2.64	3.84	3.47	3.19	3.28	3.59	3.63	3.37
		F값		.73	2.25*	-1.28	1.65	2.32*	.78	-.42	2.18*	1.57
	학교	중학교	198(50.3)	3.19	2.87	3.85	3.47	3.21	3.44	3.57	3.64	3.41
		고등학교	196(49.7)	3.44	2.60	3.73	3.60	3.37	3.17	3.58	3.78	3.42
		F값		-3.30**	3.04**	1.46	-1.55	-1.80	3.19**	-.11	-2.04*	-.22
	자아 존중감	하	123(31.2)	3.11 A	2.68	3.61 A	3.35 A	3.11 A	3.24	3.47 A	3.55 A	3.27 A
		중	153(38.8)	3.35 B	2.75	3.70 A	3.59 B	3.30 AB	3.28	3.54 A	3.71AB	3.41 B
		상	118(29.9)	3.48 B	2.78	4.09 B	3.65 B	3.45 B	3.42	3.73 B	3.86 B	3.56 C
		F값		7.29**	.38	13.42***	4.82**	5.08**	1.52	4.37*	6.07**	8.81***
가정 환경 변인	부학력	중졸이하	53(13.5)	3.23	2.75	3.70	3.45	3.27 A	3.27	3.50	3.62	3.36
		고 졸	178(45.2)	3.28	2.69	3.73	3.46	3.15 AB	3.22	3.54	3.67	3.35
		전문대졸 이상	163(41.4)	3.38	2.78	3.87	3.64	3.45 B	3.41	3.64	3.77	3.50
		F값		1.06	.45	1.68	2.32	5.47**	2.19	1.04	1.36	3.44
	부연령	45세미만	174(44.2)	3.26	2.83 A	3.84	3.50	3.28	3.43	3.65	3.71	3.45
		45~49세	161(40.9)	3.34	2.58 B	3.74	3.54	3.28	3.19	3.48	3.70	3.37
		50세이상	59(15.0)	3.40	2.89 B	3.74	3.62	3.34	3.27	3.60	3.70	3.45
		F값		.93	4.33*	.83	.42	.12	3.50	2.38	.02	.91
	생활 수준 인지도	하	41(10.4)	3.22	2.55	3.45 A	3.41	3.14	2.96 A	3.41	3.50	3.22 A
		중	127(33.2)	3.26	2.81	3.74 B	3.54	3.24	3.26 B	3.52	3.67	3.39 B
상		226(57.4)	3.36	2.73	3.87 B	3.56	3.35	3.40 B	3.63	3.77	3.47 B	
F값			1.03	1.38	5.36**	.50	1.39	5.03**	2.13	2.78	3.89*	
예절 관련 변인	예절 관련 의사 소통	하	103(26)	2.95 A	2.40 A	3.49 A	3.25 A	2.94 A	2.99 A	3.39 A	3.58 A	3.13 A
		중	162(41.1)	3.26 B	2.68 B	3.66 A	3.48 B	3.26 B	3.20 B	3.48 A	3.60 A	3.33 B
		상	129(32.7)	3.67 C	3.08 C	4.19 B	3.84 C	3.60 C	3.69 C	3.85 B	3.95 B	3.74 C
		F값		29.68***	19.07***	29.66***	16.06***	19.65***	24.02***	15.59***	12.21***	46.59***
	예절 경험 교육도	하	76(19.3)	3.16	2.72	3.66 A	3.35 A	3.13	3.22 A	3.52 A	3.73	3.32 A
		중	168(42.6)	3.27	2.67	3.67 A	3.51 AB	3.26	3.20 A	3.49 AB	3.62	3.35 A
		상	150(38.1)	3.44	2.82	3.98 B	3.65 B	3.40	3.47 B	3.70 B	3.79	3.54 B
		F값		3.93	1.16	7.18**	3.40*	2.75	4.82**	3.58*	2.55	6.48**
	부모의 관심도	하	89(22.6)	2.99 A	2.47 A	3.48 A	3.27 A	3.11	3.05 A	3.48	3.67 A	3.20 A
		중	179(45.4)	3.32 B	2.77 B	3.71 B	3.55 B	3.31	3.33 B	3.58	3.64 AB	3.41 B
상		126(32.0)	3.53 C	2.88 B	4.12 C	3.70 B	3.39	3.46 B	3.64	3.83 B	3.58 C	
F값			13.64***	6.13**	19.92***	7.15**	2.98	6.53**	1.30	3.08*	13.22***	
예절 교육 필요도	하	71(18)	2.95 A	2.47 A	3.39 A	3.25 A	3.03 A	3.03 A	3.41 A	3.38 A	3.12 A	
	중	164(41.6)	3.23 B	2.72 B	3.74 B	3.44 A	3.27 B	3.27 B	3.47 A	3.63 B	3.35 B	
	상	159(40.4)	3.56 C	2.88 B	4.01 C	3.76 B	3.75 B	3.47 B	3.76 B	3.93 C	3.61 C	
	F값		18.90***	5.44**	16.57***	11.21***	6.55**	6.87**	9.24***	17.84***	23.86***	

*p<.05 **p<.01 ***p<.001

이 초대졸 이상 및 중졸이하인 집단이 고졸집단보다 대화예절 수행이 높았는데, 이는 부의 학력에 따라 전화예절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김상

범(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전통예절 영역에서 부연령이 45세미만의 집단과 50세 이상의 집단이 45~49세미만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생활수준인지도의 경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 일수록 예절수행 정도가 높았으며($F=3.89, p<.05$), 특히 인사예절과 전화예절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강선영, 1999;곽정순,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예절관련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예절관련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F=46.59, p<.001$), 예절교육경험정도가 높을수록($F=6.48, p<.01$),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F=13.22, p<.001$), 청소년의 예절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F=23.86, p<.001$)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간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예절교육 경험정도가 높고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절수행이 높다고 보고한 강선영(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곽정순, 1995; 김정애, 1992; 이정우·김경아, 1997)들은 예절교육 수강경험이 예절수행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예절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지지한 바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예절수행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수준인지도, 예절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성·학년, 부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는 예절수행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예절관련변인인 예절관련 의사소통, 청소년의 예절교육경험,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예절교육필요도에 따라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예절수행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전체적으로 예절의식과 예절수행간에 $r=.66$ 의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사이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식사예절의식과 식사예절수행간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r=.59$), 다음으로 인사예절의식과 인사예절수행($r=.53$), 공중예절의식과 공중예절수행($r=.51$), 전화예절의식과 수행($r=.50$), 전통예절의식과 전통예절

수행($r=.49$), 방문예절의식과 방문예절수행($r=.48$), 대화예절의식과 대화예절 수행($r=.47$) 순 이었다. 즉, 예절의식이 높을수록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절을 실천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 예절의식과 예절수행간의 상관관계

(n=394)

하위영역	상관관계
몸가짐의식과 수행	.46**
전통예절의식과 수행	.49**
인사예절의식과 수행	.53**
식사예절의식과 수행	.59**
대화예절의식과 수행	.47**
전화예절의식과 수행	.50**
방문예절의식과 수행	.48**
공중예절의식과 수행	.51**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전체)	.66**

**p<.01

5. 관련변인 및 예절의식이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청소년의 예절수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내 예절관련 의사소통도($\beta=.27$), 공중예절의식($\beta=.21$), 방문예절의식($\beta=.19$), 식사예절의식($\beta=.17$), 전화예절의식($\beta=.12$), 자아존중감($\beta=.10$), 전통예절의식($\beta=.09$), 부학력($\beta=.09$), 성($\beta=.08$)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8개 변인의 설명력은 56%이었다. 즉, 예절관련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예절의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인 경우 예절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수행의 각 영역별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몸가짐 영역의 경우 몸가짐 예절의식($\beta=.29$), 예절관련의사소통($\beta=.21$), 방문예절의식($\beta=.13$), 식사예절의식($\beta=.12$), 학교($\beta=.12$)순

〈표 7〉 관련변인 및 예절의식이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하위영역										전제							
		몸가짐		전통예절		인사예절		식사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		방문예절		공중예절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학교	.19	.12**	-.27	-.15**	-.17	-.10*	7.47	.05	3.89	.02	-.26	-.16**	-2.37	-.02	.13	.10*	-2.58	-.02
	성	4.21	.03	.27	.15***	-5.99	-.04	.12	.07	.15	.09*	4.85	.03	1.40	.01	.12	.09*	8.81	.08*
	자아존중감	7.65	.07	-4.59	-.00	.18	.14**	.12	.09*	9.75	.08	3.95	.03	.13	.12*	4.70	.04	8.19	.10**
	가정 환경 변인	부학력	1.54	.03	3.76	.06	3.33	.05	2.22	.03	4.27	.07	5.52	.09	3.16	.06	5.40	.10*	3.65
	부연령	2.84	.02	6.42	.31	2.70	.01	3.20	.02	-1.47	-.01	-5.60	-.03	1.17	.01	-1.28	-.08	-8.17	-.01
	생활수준	-7.79	-.00	-9.70	-.02	2.16	.05	1.26	.03	7.59	.02	1.60	.03	2.89	.07	1.84	.01	9.43	.03
관련 변인	예절관련 의사소통	.20	.21***	.26	.23***	.13	.13**	.11	.10*	.25	.23***	.23	.22***	.15	.17**	.19	.22***	.19	.27***
	예절교육 경험여부	-6.91	-.00	-1.33	-.03	2.05	-.01	1.03	.03	6.72	.02	-1.10	-.03	-9.56	-.03	-6.10	-.02	-3.01	-.12
	부모 관심도	1.59	.02	-5.28	-.05	.11	.12*	1.25	.01	8.87	.09	-1.06	-.01	-9.09	-.11	-.11	-.09	-2.56	-.04
	예절교육 필요도	4.91	.05	-6.44	-.06	-3.13	-.03	-1.53	-.02	8.45	.01	-5.50	-.05	-2.22	-.03	5.10	.06	-9.28	-.01
예 절 의 식	몸가짐	.31	.29***	-4.41	-.04	.11	.10	-2.28	.06	1.89	.02	-2.74	-.02	7.06	.07	1.95	.02	5.59	.07
	전통예절	-2.98	-.03	.46	.44***	-4.32	-.05	1.48	.02	4.17	-.04	6.38	.06	7.82	.09	2.05	.02	5.87	.09*
	인사예절	-9.49	-.09	-5.68	-.01	.39	.34***	-.16	-.10	-1.17	-.11	-5.18	-.04	-2.86	-.03	3.59	.00	-2.41	-.03
	식사예절	.10	.12*	4.40	.04	-3.87	-.04	.52	.53***	5.55	.06	4.86	.05	-9.87	-.01	6.45	.08	.11	.17***
	대화예절	-7.62	-.07	-.11	-.09	-4.88	-.04	-3.91	-.03	.35	.29***	-9.33	-1.45	-6.48	-.06	-5.62	-.06	-2.49	-.03
	전화예절	6.75	.08	.10	.10	7.14	.08	2.53	.00	1.01	.01	.32	.34***	-3.04	-.04	8.52	.01	7.38	.12**
	방문예절	.13	.13*	.17	.14*	.20	.19**	.11	.10	.16	.14*	.13	.12	.41	.43***	-5.55	-.06	.15	.19***
공중예절	.11	.10	-2.60	-.02	5.77	.05	.18	.15**	.18	.16**	.18	.15**	9.76	.10	.46	.47***	.17	.21***	
상수		2.78		8.43		-.481		.22		4.12		.71		.82		1.50		.40	
F값		12.16***		12.00***		7.47***		15.70***		10.63***		12.51***		8.90***		11.00***		26.69***	
R ²		.37		.37		.46		.43		.34		.38		.30		.35		.56	

*p<.05 **p<.01 ***p<.001 ※ 가변인 기준집단: 성 - 여, 학교 - 중학교

이었으며, 전통예절 수행은 전통예절의식($\beta=.44$), 예절관련의사소통($\beta=.23$), 학교($\beta=-.15$), 성($\beta=.15$), 방문예절의식($\beta=.14$)순이었다. 인사예절수행은 인사예절의식($\beta=.34$), 방문예절의식($\beta=.19$), 자아존중감($\beta=.14$), 예절관련의사소통($\beta=.13$), 부모의 관심도($\beta=.12$), 학교($\beta=-.10$)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예절수행은 식사예절의식($\beta=.53$), 공중예절의식($\beta=.15$), 예절관련의사소통($\beta=.10$), 자아존중감($\beta=.09$)순이었다. 대화예절수행은 대화예절의식($\beta=.29$), 예절관련의사소통($\beta=.23$), 공중예절의식($\beta=.16$), 방문예절의식($\beta=.14$), 성($\beta=.09$)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화예절수행은 전화예절의식($\beta=.34$), 예절관련의사소통($\beta=.22$), 공중예절의식($\beta=.15$), 학교($\beta=-.16$)순이었다. 방문예절수행은 방문예절의식($\beta=.43$), 예절관련의사소통($\beta=.17$), 자아존중감($\beta=.12$)순이었으며, 공중예절수행은 공중예절의식($\beta=.47$), 예절관련의사소통($\beta=.22$), 부학력($\beta=.10$), 성($\beta=.09$)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예절의식은 각 영

역별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또한 예절관련의사소통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의 일반적 경향 및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예절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찾아냄으로써 인간교육에 초점을 둔 청소년 예절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수행은 전 영역에서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비교적 건전한 예절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인사예절과 공중예절의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예절의식과 수행정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의식과 수행정도를 보인 영역은 전통예절이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사고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예의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절의식에 비해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나 예절에 대한 의식만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예절인 대화예절의 경우 의식은 높으나 수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정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절교육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은 청소년의 개인변인, 가정환경변인, 그리고 예절관련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 개인변인인 성, 학년, 자아존중감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 및 수행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에 따라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과 학년에 따라서는 하위영역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의식 및 수행 역시 전체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바른 예절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예절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사예절의식이 높은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예절·대화예절·공중예절 수행이 높게 나타나 일부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예절을 더 잘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 예절의식 및 수행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예절수행의 경우 하위영역별로 중학생의 예절수행이 높은 영역과 고등학생의 예절수행이 높은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시기상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예절영역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학생들의 예절수행에도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과 연령, 생활수준인지도 등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수행을 살펴본 결과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전반적인 예절의식 및 수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모학력, 부학력과 연령에 따라서는 예절의식 및 수행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대

화예절의식의 경우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및 초대졸이상 집단의 예절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니며(김명나, 1989), 어머니의 집합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예절을 더 잘 수행하였다는 보고(이정우·김명나, 1999)와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즉, 보다 전통적이고 집단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중시하는 어머니일수록 예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의 예절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초대졸이상 집단에서 자녀의 대화예절의식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했다는 보고(이길표, 1997)에서 제시되듯이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예절수행의 경우에는 부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의 대화예절 수행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의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으로써 자녀들의 예절수행이 높아진 것으로 추론된다.

예절관련변인에 따라 예절의식과 수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절관련인사소통도가 높고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절의식 및 수행 정도도 높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자녀의 예절의식이나 행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도함으로써 자녀들의 예의바른 생활이 실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예절교육경험정도가 높고 예절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예절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 예절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경우 예절의 실제 수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의 각 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예절의식과 예절수행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각 영역별 예절의식과 수행사이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예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예절의 실천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기에 예절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예절교육이 선행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예절의 실천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관련변인 및 예절의식이 예절수행 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절관련의사소통도가 높고 각 영역별 예절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남학생일 경우 예절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 예절수행에 있어서는 각 영역별 예절의식이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예절관련의사소통 변인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예절관련 의사소통도가 예절수행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평소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예절의식이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예절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예절의식의 함양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가치관의 형성기인 청소년기에 바른 예절의식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역시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 자아인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 인식이 생활윤리나 공중도덕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프로그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전주 시내 일부 중·고등학교를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예절영역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므로 예절의 전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들은 예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자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절에 대한 의식 및 수행은 성장과정에서 종합되어 습관화되므로 자연스럽게 예절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가정에서의 예절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들에게 예절교육의 중요성과 바른 실천을 도울 수 있는 부모대상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자녀훈육 및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 대상의 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아버지들이 자녀의 예절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가치관의 형성기인 청소년들이 우리 고유의 예절과 생활예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예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초, 중, 고, 일반성인 대상에 따른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주기별로 예절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예절교육내용 및 교수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예절의식, 예절수행

참고문헌

- 강민정(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강선영(1999).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의식·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곽정순(1995). 청소년의 예절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권이종(1997). 청소년 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김명옥(2000). 중등학교 예절교육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상범(1998). 중학생 예절의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 김선주(1997). 직장인의 예절의식과 생활예절 실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윤환(1992). 기본생활예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애(1992). 중학생의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규(1996). 청소년의 예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여성교양학회 학술발표회.
- 김판례(1998). 예절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월간실천예절, 12(1). 한국전례원.
- 김희경(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노은호(1996). 초등학교 생활예절 교육내용 및 지도 실태 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 학술발표회.
- 박공주(1997). 부모의 예절교육과 예절실천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동오(1994). 현대인의 예절. 서울: 창우사.
- 서수자(1997). 청소년 예절교육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성균관(1993).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성균관 출판부.
-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 이상림(1999). 인성교육은 예절교육의 기본. 월간실천예절, 13(1), 한국전례원.
- 이정남(2000). 중·고등학생의 예절태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우 외 6인(1996). 생활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 수행.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2, 39-56.
- 이정우 · 김경아(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1.
- 이정우 ·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생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4, 1-16.
- 이정우 · 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임혜경 · 임희규(1998). 대학생의 예절수행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양여대 논문집, 21, 455-481.
- 장경선(1992). 가정과 교육을 통한 예절교육 실태에 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전례연구위원회(1992). 우리의 생활예절. 서울: 성균관.
- 전상수(1997). 전통예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최기호(1995).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점화(1986). 청소년의 가정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재선(1984). 예절교육 특설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여성교양학회(1992). 생활예절. 서울: 양서원.
- 한상철 · 조아미 · 박성희(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현장지도기술 연구회편(1988). 예절교육의 지도기술. 현대교육출판.
- Free A. R.(1969). Social Usage. New York: Appleton Century Crafts.
-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3. 10 접수)